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정부,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발표

□ 정부는 높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‘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’을 마련하여 발표함.

- 과도한 해외자본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‘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’을 마련함.
-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자유화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자본유출입 관리강화방안 및 대응능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자본유출입 관리강화방안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도입, 외화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, 외환건전성 관리강화의 내용이 포함됨.

- 국내은행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%로, 외은지점은 250%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도입되며 증권·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함.
-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하여 외화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함.
- 외환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외은지점은 자율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방침임.

□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며, 외환보유액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정함.

-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종합예측모형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금융센터 내 ‘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(가칭)’를 신설하기로 결정함.
-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G-20 회의시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, 아시아 차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CMIM* 자금지원체계 및 감시역량 등을 확충하기로 함.
-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시를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며, 보완장치로 KIC**,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 확충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.

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: 13개국 이 위기시 상호 지원을 하기 위한 아시아 금융 안전망으로 아시아판 IMF를 목표로 지난 3월 1,200억불 규모로 출범함.

** 한국투자공사의 약칭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한 투자기관임.

(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등, 기획재정부 등, 6/14)